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총력

토론회 개최·유적지 답사하고 제주 4·3사건 벤치마킹
올해 71주년 맞아 국회 방문 제정 촉구 등 활발한 활동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여순사건 유족회·시민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유적지 답사, 제주 4.3 사건 벤치마킹, 국회 방문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여수시의회의 활발한 움직임이 지역사회에 확산되면서 올해로 71년을 맞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여순사건 특위를 꾸린 후 지역사회의 염원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가 지난달 10일 개최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방향과 지역사회 역할 논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는 이오성(여수지역사회연구소) 시민정책위원장과 강정희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수시 김용필 총무과장 등 3명의 패널과 50여 명이 유족들이 참석했다.

이날 유족 등 참석자들은 전남도·여수·순천 특위와 함께 유족회·시민단체·정치권 등이 하나 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벌여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또 여순사건 당시 14연대 주둔지부터 희생자 묘 등 6곳의 유적지 답사에 이어 지난 달 23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 4·3특별위원회, 제주 4·3평화재단, 유적지 등을 방문했다.

특위 의원들은 방문 첫 일정으로 제주도의회를 찾아 4·3특별위원회 정민구 위원장과 도의원 면담하고 제주 4·3 특별법 제정 과정과 배·보상이 포함된 특별법 전면개정안을 벤치마킹 했다.

전창곤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위위원장은 "제주 4·3 사건은 지난 2000년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비로써 진상규명이 진척될 수 있었다" 며 "그에 비해 아직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여순사건도 신속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평화공원 조성 등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또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국회를 찾아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을 이어갔다.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 꾸려진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방문단이 최근 국회를 찾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여수시의회 제공〉

45명으로 꾸려진 국회 방문단은 여수·순천시의회와 전남도의회 특위, 여순사건 유족협의회장단, 재경유족회와 시민단체 등 8개 단체가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여수시의회 특위 등 방문단은 주승용 국회부의장 등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5명의 국회의원과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활발한 동참도 이끌어 냈다.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은 "여순사건의 발단이 된 제주 4.3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돼 정부 지원과 함께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지만, 여순사건은 진실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는 뼈아픈 현실"이라며 " 앞으로도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수시와 시민사회단체, 양 유족회, 정치권 등 지역사회 모두가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수시의회 차원의 특위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지난 18일 여수시청 현관에서 권오봉(왼쪽에서 여섯 번째) 여수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소통 우편함을 설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부정부패 퇴치… '청렴소통 우편함' 떴다

여수시 청사·보건소 등 설치

여수시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여수 실현을 위해 '청렴소통 우편함'을 설치했다.

우편함은 여수시청 본청사, 문수청사, 여서청사, 보건소, 옛 보건소에 마련됐다.

민원인은 익명으로 공무원 부정부패 행위를 엽서에 적어 우편함에 넣으면 된다.

공무원도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부당예산 집행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을 보장받는다.

시는 신고 내용에 따라 중대한 사안은 엄중 문책하고 경미한 사안은 주의조치할 계획이다.

문승남 여수시 감사담당관은 "우편함에 신고된 부정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이 사실로 밝혀지면 일벌백계하겠다"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목소리에 더 많이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서시장 먹거리광장 개장…7개 점포 입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1년차 사업

여수시 서시장주변시장 먹거리광장이 개장했다.

이번 개장한 먹거리광장에는 점포 7개가 입점했고, 판매 품목은 이순신 수제버거, 핫도그, 닭강정 등이다. 지난 15일 열린 개장식에는 상인기획단, 여수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

이번 사업은 국비 포함 총 8억 6000만원이 투입되는 서시장주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1년 차 사업의 일환이다.

시는 오는 3월부터 연등천변 시장 아케이드면 LEC 조명 설치, 관광지 연계 이벤트, 상인 역량강화 사업 등 2년 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이 가득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디오션리조트 임직원 5년째 사랑의 헌혈

남해안 대표 종합휴양시설인 여수디오션리조트가 헌혈 캠페인에 나서는 등 지역 사랑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여수 디오션리조트는 지난 18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 행사를 갖고 동계기간 발생하는 혈액부족 사태 해소에 힘썼다. 〈사진〉

이번 헌혈 캠페인은 동절기 지역 혈액 수급 불안정 해소 효과와 사랑 나눔을 위해 디오션리조트 임직원들이 자발적인 뜻을 모아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디오션리조트는 이날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연계해 지원받은 헌혈차량을 회사 내에 배치하고 임직원들이 근무 중에도 헌혈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유광현 여수디오션리조트 부사장은 "지역 대표기업으로 부족한 혈액 수급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이번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 개관한 여수디오션리조트는 모든 객실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128실 규모의 콘도와 국내 유일 파라오션 워터파크, 특급 호텔, 오션뷰 골프장 등을 갖춘 종합 휴양시설로 지역민과 전국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 최우수상

상사업비 6000만원 확보

여수시는 전라남도 주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사업비 6000만원도 확보했다.

지난해 여수시 지방세 징수율은 97.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시는 각종 납부편의시책 제공과 성숙한 시민의식 등을 수상의 원인으로 꼽았다.

또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징수 전략과 이월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도 징수율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개발·홍보하고 시민과의 소통 기회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도심 주차난 완화 위해 소규모 임시 주차장 조성

여수시는 도심 주차난 완화를 위해 시민의 신청을 받아 소규모 임시 주차장을 조성한다.

여수시는 사업비 5000만원을 책정하고 중앙동과 여서동, 문수동, 학동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신청을 받기로 했다. 주차장으로 시에 부지를 임대하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여수시는 최소 3년간 임시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부지 소유자와 협의해 사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비로 5000만원을 책정했으며 10여곳에 임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다.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무료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주차장을 확충해 임시 공영주차장을 31곳에 마련했다"며 "유휴지를 위주로 신청을 받아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